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193>

JCCT 2024-7-21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송민선*, 정현식**

Min Sun Song*, Hunsik Jung**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및 노인부양의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대학생 131명으로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r=.49, p<.001$), 가족건강성과 노인부양의식($r=.30, p<.001$)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beta=-.18, p=.029$), 형제자매여부($\beta=.18, p=.027$), 가족건강성($\beta=.26, p=.002$)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노인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노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부양의식, 노인,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family strength, and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131 college students, and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March 26 to April 11, 2024.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 ($r=.49, p<.001$), and between family health and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r=.30, p<.001$). Factors that influence the participant's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are age ($\beta=-.18, p=.029$), sibling status ($\beta=.18, p=.027$), and family strength ($\beta=.26, p=.002$).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have college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 in programs related to the elderly so that they can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establish correct values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 with the elderly.

Key words : Self-esteem, Family Strength, Awareness of Support, Elderly, College Student

1.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가족구성 및 역할의 변화가 나타나고 전통적인 대가족 구성은 없어지고 부부중

심의 핵가족화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로 노인의 위치와 역할변화의 문제가 발생하며,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고 있다[1]. 국내 65세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가 되었으며,

*정희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4월 19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7일

Received: April 19, 2024 / Revised: May 20, 2024

Accepted: June 7, 2024

**Corresponding Author: jhs3010@konyang.ac.kr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Konyang Univ, Korea

지속적인 고령화 현상은 여러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2].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되면서 개인주의적 문화가 자리를 잡고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매우 약화되었으며, 국가가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3]. 따라서, 앞으로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4].

현대사회는 젊음과 관련된 특성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5]. 대학생은 고령화 사회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앞으로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집단으로 노인부양의식은 노인문제 대처와 함께 세대 간의 갈등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6]. 이러한 점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자신에 대한 가치관과 느낌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형성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은 높게 나타났다[5]. 자아존중감은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자아존중감 향상은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7].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성장과정에서부터 긍정적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내실있는 가정교육과 공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7]. 자아존중감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8].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건강성은 가족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부양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9].

많은 노인들의 부양은 가족들에 의해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은 비공식적인 노인부양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0].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부양에 새로운 접근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노인세대와 부양세대에게도 가족관계의 악화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11]. 따라서, 다양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의 근간이 가족부양임을 감안할 때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이 노인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출생순서, 종교, 부모님 건강상태[1]를 본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 치매 관심 여부, 공감[4], 치매에 대한 태도[6] 등으로 치매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개인측면과 가족측면을 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측면인 자아존중감과 가족측면의 가족건강성이 노인부양의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향후 노인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문제 해결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및 노인부양의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은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하였으며, 제외기준은 휴학생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수는 표본추출 공식에 따라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12]. 따라서 유의수준.05,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인 10개를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선택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27명이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불충분한 응답과 탈락률 약 20%를 고려하여 총 140명을 모집하였다[13]. 모집된 대상자 중 설문지 응답이 미흡한 9명(탈락율 6.4%)을 제외하고 총 13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형제자매여부, 부모님의 건강상태, 조부모님과과의 거주 경험,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 노인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경제적 수준이었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Rosenberg [14]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Park과 Choi [15]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Likert 식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과 Choi [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3) 가족건강성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Eo와 Yoo [16]가 개발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은 총 34문항으로 하위영역은 가족구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구성원간의 가치체계공유(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Eo와 Yoo [16]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 하위영역은 .80~.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7, 하위영역은 .86~.92이었다.

4) 노인부양의식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Tuckman과 Lorge [17]의 척도를 기본으로 Kwon과 Lee [1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인부양의식은 총 22문항으로 하위영역은 경제적 노인부양의식(7문항), 정서적 노인부양의식(8문항), 신체적 노인부양의식(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적극반대 1점, 반대 2점, 보통 3점, 찬성 4점, 적극찬성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영역별로는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74,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72, 신체적 노인부양의식 .68로 나타났다. Kwon과 Lee [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754,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743, 신체적 노인부양의식 .72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6,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91,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90, 신체적 노인부양의식 .93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학교내 홍보 게시판을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

하였으며, 연구참여를 희망한 대상자의 경우 연구의 목적, 연구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구글폼을 통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자료를 수집하기 전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코드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관하며,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코드화된 자료는 영구삭제 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답례품 제공을 위해 수집된 연락처는 답례품 제공 후 바로 삭제함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 소요시간은 15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자료는 IBM SPSS 29.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은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및 노인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21.15 \pm 2.93세로 평균을 중심으로 22세 미만인 79명(60.3%)으로 많았다. 성별은 남자 63명(48.1%), 여자 68명(51.9%)이었으며, 형제자매여부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108명(82.4%)으로 많았다. 부모님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90명(68.7%), 조부모와의 거주 경험은 전혀 없다가 64명(48.9%)으로 많았다.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은 있는 경우가 76명(58.0%), 노인관련 교과목 수강여부는 수강한 적이 없는 경우가 108명(82.4%),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가 90명(68.7%)으로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를 보면, 연령($t=2.59$, $p=.011$)과 형제자매여부($t=-2.21$, $p=.029$)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을 평균기준으로 분류하였을때 연령이 22세 미만인 경우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서 노인부양의식 점수가 높았다 반

면, 성별, 부모님의 건강상태, 조부모님과 거주 경험,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 노인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경제적 수준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Table 1.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1)

Variables	Mean±SD or n(%)	Mean±SD	t or F (p)
Age (year)	21.15±2.93		
<22	79(60.3)	3.97±0.58	2.59 (.011)
≥22	52(39.7)	3.64±0.78	
Gender			
Male	63(48.1)	3.79±0.71	-0.72 (.473)
Female	68(51.9)	3.88±0.66	
Siblings status			
None	23(17.6)	3.56±0.75	-2.21 (.029)
Have	108(82.4)	3.90±0.66	
Parents' health status			
Average health	41(31.3)	3.81±0.66	-0.34 (.737)
Healthy	90(68.7)	3.85±0.70	
Life experience with grandparents			
Living together	16(12.2)	3.94±0.92	0.39 (.680)
Never lived together	64(48.9)	3.79±0.63	
Have experience living together	51(38.9)	3.87±0.68	
Volunteer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Yes	76(58.0)	3.79±0.72	-0.84 (.403)
No	55(42.0)	3.90±0.64	
Experience in taking courses related to the elderly			
Yes	23(17.6)	3.78±0.53	-0.43 (.665)
No	108(82.4)	3.85±0.71	
Economic status			
Poor	10(7.6)	3.57±0.53	0.92 (.400)
Average	90(68.7)	3.84±0.66	
Rich	31(23.7)	3.90±0.78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및 노인부양의식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17±0.56점, 가족건강성은 평균 4.01±0.63점, 노인부양의식은 3.84±0.68점이었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을 보면 가족구성원간의 유대 4.13±0.64점,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4.06±0.63점, 가족구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3.75±0.76점으로 가족구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4.10±0.67점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가치체계공유 점수가 가장 낮았다.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영역을 보면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3.94±0.74점,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3.65±0.76점, 신체적 노인부양의식 3.94±0.74점이었으며,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및 노인부양의식
Table 2. Self-esteem, Family Strength, and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of the Participants (N=131)

Variables	Mean±SD	Min	Max
Self-esteem	3.17±0.56	1.50	4.00
Family strength	4.01±0.63	2.24	5.00
Bonding between family members	4.13±0.64	2.50	5.00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4.06±0.63	2.00	5.00
Sharing of value system among family members	3.75±0.76	1.56	5.00
Family problem solving ability	4.10±0.67	2.67	5.00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3.84±0.68	1.00	5.00
Economic	3.94±0.74	1.00	5.00
Emotional	3.65±0.76	1.00	5.00
Physical service	3.94±0.74	1.00	5.00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및 노인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및 노인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r=.49, p<.001$), 가족건강성과 노인부양의식($r=.30, p<.001$)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노인부양의식 간에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및 노인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Self-esteem, Family Strength, and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N=131)

Variables		1	2	3
		r (p)		
1	Self-esteem	1		
2	Family strength	.49 (<.001)	1	
3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13 (.138)	.30 (<.001)	1

4.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설명력을 비교하고 일반적 특성 변인 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형제자매여부를 더미 처리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가족건강성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977~.983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17~1.024로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963으로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충족하였고, 이에 회귀모형 사용은 적합함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7.43, p<.001$),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beta=-.18, p=.029$), 형제자매여부($\beta=.18, p=.027$), 가족건강성($\beta=.26, p=.002$)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12.9%였다.(Table 4).

표 4.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Factors affecting Participants'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N=131)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3.34	0.58		5.80	<.001
Age	-0.04	0.02	-.18	-2.21	.029
Siblings status_ Have(ref None)	0.33	0.15	.18	2.23	.027
Family strength	0.28	0.09	.26	3.15	.002
F=7.43 ($p<.001$) $R^2 =.149$ Adj. $R^2 =.129$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개인측면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측면의 가족건강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노인부양의식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영역 중 경제적 노인부양의식과 신체적 노인부양의식 점수가 같았으며,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노인부양의식 중 가장 강한 부양의식으로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을 보인 Back과 Kim [1]이나 Yang [19]의 연구처럼 본 연구도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의 점수가 높

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보인 것처럼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 자체가 경제적인 부양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의견을 존중하고 공손히 대하는 정서적인 부양보다는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부양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자기주장이 강한 현대 젊은이들의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하였다[19]. 따라서 Park과 Lim [13]은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노인관련 교육과정 운영 시에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는 연령과 형제자매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낮은 경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서 노인부양의식이 높았다. 이는 대상자는 다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노인부양의식 연구에서 연령,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보인 Park과 Lee [20]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부모님 건강상태[1], 연령, 성별, 조부모와의 거주경험,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 노인관련 교과목 수강여부[1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 Park과 Lim [13]의 연구에서 30세 이상과 20세 미만에서 노인부양의식의 점수가 높았으며, Park과 Lee [20]의 연구에서는 20대가 30대보다 노인부양의식이 높았던 점을 볼 때 본 연구대상자는 주로 20대의 연령층에 국한하여 나타난 결과로 다양한 연령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형제자매여부 및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Lee [9] 연구와는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가족측면의 노인부양의식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는 가족형태의 변화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Kim [21]의 연구에서처럼 가족들과의 유대감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도구로 조사한 기혼 성인의 가족건강성에서는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낮는데 비해[22], 본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은 가족구성원간의 가치체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대

학생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기존 세대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또한 노인부양의식을 높이는데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연령, 형제자매여부가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노인부양의식의 영향요인을 제시되지 않아 Ko [7]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상 대학 시기는 사회내에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 실험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을 접하며,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시기이다[19]. 따라서 대학생이 직접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시기가 아니므로 개인측면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학생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는 세대가 될 것으로 노인을 대하는 태도 즉 노인부양의식은 중요하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사회적으로 정책 마련이 계속되고 있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3]. 본 연구는 고령화되어 가는 시대를 책임질 대학생에게 노인부양의식에 가족건강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가정해체가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건강한 가정이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된다는 점은 Kwon과 Lee [18]의 연구에서도 제시한 바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향후 다양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수를 확대하고 노인부양의식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및 노인부양의식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형제자매여부, 가족건강성으로 개인측면의 자아존중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족측면의 가족건강성은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가족측면의 영향요인을 기반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즉 노인부양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족중심의 노인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과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U. Back, M.J. Kim, "A study on the undergraduates'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6, No.3, pp.67-85, September, 2009.
- [2] Statistics Korea. Future population projection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23 [cited 2024 Mar 24].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3842&markType=S&itmNm=%EC%A0%84%EA%B5%AD
- [3] N.R. Kim,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ublic support system through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Dankook Law Review*, Vol.40, No.2, pp.243-273, June 2016.
- [4] Y.A. Han, M.S. Seo,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Vol.8, No.6, pp. 75-84, December 2022. <https://doi.org/10.20465/KIOTS.2022.8.6.075>
- [5] (한숙정) S.J. Han, H.S. Kim, "Influences on the aging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2 pp.1164-1174, February 2015. <https://doi.org/10.5762/KAIS.2015.16.2.1164>
- [6] M.J. Yun,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of dementia, and awareness of care giving for elderly among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7, No.11, pp. 419-426, November 2019. <https://doi.org/10.14400/JDC.2019.17.11.419>
- [7] J.U. Ko,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on their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22, pp. 161-183, March 2017.
- [8] H.R. Nam, "Effects of family health, self-respect, and resilience elastic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Vol.6, No.2, pp.1-6, May 2021.
- [9] C.J. Lee, Effect of family health on elderly support consciousness, Master's thesis, Kyonggi

- University, Kyonggi, 2013.
- [10]W.H. Lee, Y.S. Kwo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amily members and awareness of the elderly on supporting the aged”,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14, No.2, pp.165-178, August 2005.
- [11]M. Dellmann-Jenkins, M. Blankmeyer, O. Pinkard, “Young adult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primary caregiver roles to older relatives and their service needs”, *Family Relations*, Vol.49, No.2, pp.177-186, April 2000.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0.00177.x>
- [12]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No. 4, pp.1149-1160, November, 2009.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13]K.M. Park, D.Y. Lim,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regarding aging,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20 No.2, pp.47-57, October 2016.
- [14]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5]M.J. Park, B.G. Choi, “ The ec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2, No.4, pp.95-104, August 2004.
- [16]E.J. Eo, Y.J. Yo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13, No.1, pp.145-156, March 1995.
- [17]J. Turkman, I. Lorge, I. “The effect of institutionalization on attitude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47, No.2, Suppl, pp.337-344, April 1952. <https://doi.org/10.1037/h0060277>
- [18]G.G. Kwon, J.M. Lee, “A study on the undergraduates’ consciousness of supporting for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Regional Innovation*, Vol.4, No.2, August 2009.
- [19]Y.K. Yang, “A study on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4, pp.498-507, November 2013.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498>
- [20]J.H. Park, D.H. Lee, “A study on the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Vol.1, No.3, pp.131-150, February 2010.
- [21]M.J. Kim, “The impact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 family health, and self-esteem on persona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7, No.7, pp.365-374, October 2023. <https://doi.org/10.21184/jkeia.2023.10.17.7.365>
- [22]H.W. Park, “Factors affecting family strength of married adults: Focused on the family-of-origin experienc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9, pp.184-194. September 2015. <https://doi.org/10.5392/JKCA.2015.15.09.184>